

담양군 '창평국밥거리' 조성 마무리... 새로운 음식특화거리 기대

창평시장 역사성과 전통·창평슬로시티 등 관광지 인접 거리 상징물 설치·간판 정비 등 주변 환경 개선 완료

담양군이 새로운 음식특화거리인 '창평국밥거리'의 새단장을 마쳤다. 담양군은 2021년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창평국밥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창평국밥거리 조성사업은 음식문화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10억 원(도 군비 각 5억 원)을 투입해 진행했다. 창평국밥거리는 1919년 창평 전통시장 개설과 함께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슬로시티와 함께 담양군 창평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군은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 ▲거리 상징조형물, ▲주차장 내 소공원, ▲디자인 버스승강장, ▲포도존 수목벤치 ▲디자인 간판을 새롭게 설치했으며, 화장실 외벽 정비 등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남도문화 관광도시 담양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와 볼거리, 재미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와 결합한 행사 등을 추진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한겨울 눈 조각 페스티벌 개최

곡성군이 오는 14일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잔디광장에서 '한겨울 눈 조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가족당 100x60x120cm 크기의 대형 눈 불꽃이 하나씩 제공된다. 전문 조각가와 함께 상상하는 대로 마음껏 눈 조각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완성된 작품들은 잔디광장에 일주일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미니 눈사람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1월 4일부터 6일까지 곡성군 교육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접수하면 된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3인 이상 가족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총 50팀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지만 조각에 필요한 망치, 끌, 조각도 등은 팀별로 각자 준비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문 조각가들과 눈 조각이라는 접점이 힘든 예술 활동을 통해 겨울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지역성장팀(☎061-360-2911)에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혜영기자

구례군, 전남지역 최초 '스마트시티 CCTV 관제사' 자격 취득

청원경찰 포함 CCTV 관제센터 근무 요원 16명 전원 패기

구례군은 지난 12월 28일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 전원이 '스마트시티 CCTV 관제사' 전문 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군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관제요원 16명 전원이 '스마트시티 CCTV 관제사' 자격을 취득했다. '스마트시티 CCTV 관제사' 자격증은 경

찰청 등록 한국안전경영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민간 전문자격증으로 우수한 CCTV 관제 인력 양성과 관제요원 자질 함양에 목적이 있다.

CCTV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요원은 관내 1,200여 대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유관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매년 사

건·사고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과 경찰서로부터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군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에서는 관제요원의 안전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 관제요원 직무역량 강화 일환으로 관제요원 전문자격 취득 과정을 마련하였으며 전남지역 최초 전원이 스마트시티 CCTV 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구례=박진호기자

"영산포 주민 의료 숙원사업 해소" 나주시,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업무협약...폐업·방치된 병원 건물 인수, '응급실·입원병상 갖춘 준종합병원' 개원



응급의료 서비스 불모지에 놓여있던 나주시 영산포·남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형 종합병원' 설립이 이뤄진다.

2019년 11월 이후 장기간 폐업·방치된 옛 영산포 제일병원(이창동 소재) 건물을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이 인수하기로 하면서 올해부터 나주시역 최초 민·관 합동 공공형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29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이사장 김미순)과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화의료재단은 나주시 금천면에 위치한 나주효사랑병원·효사랑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시와 재단은 이날 협약을 통해 민·관 합동 보건 의료 인프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영산포, 남부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선진 의료 서비스 제공에 힘을 모은다.

재단은 지하 1층·지하 5층 규모(연면적 4583㎡) 옛 영산포 제일병원 건물을 인수해 내년부터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등 진료과목을 갖춘 100병상 이상 준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설립에 착수한다.

지난 2002년 7월 문을 연 옛 영산포제일병원은 응급실과 입원병상, 진료과목을 두루 갖춘 의료시설로 이용돼왔으나 농촌지역 인구감소 등에 따른 경영악화 요인으로 2019년 11월 폐업돼 3년 넘게 빈 건물로 방치돼왔다.

이 때문에 이창·영산·영강동 3개동 영산포, 왕곡·세지·반남면 등 남부권 지역 주민들은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가능한 병원이 한 곳도 없어 응급 진료나 입원 치료를 위해서는 관내 또는 타 지역 종합병원으로 먼 거리를 오고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왔다.

윤병태 시장은 취임 전 나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응급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발굴해 옛 영산포 종합병원 건물을 활용한 민·관 합동 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을 역점 추진해왔다.

그 결실로 이날 세화의료재단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영산포·남부권 주민들이 응급·재난 상황에서 365일 24시간 소중할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양질의 보건 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시장, 강영구 부시장, 서현승 보건소장, 김미순 세화의료재단 이사장, 김인형 상임이사, 김기재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5대 지역특화작목 육성 '쟁걸음'

1월 31일까지 재배 희망농가·재배농가 지원 신청·접수

화순군이 군비 16억5000만 원을 투입해 민선 8기 들어 집중적으로 육성할 5대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사업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재배 희망농가와 재배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샤인머스켓 ▲콩 ▲복숭아 ▲토마토 ▲블루베리 5종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예비사업자 수요조사를 하는 등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매진해 왔었다.

군은 수요조사 등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참여 희망 농가를 모집해 특화작목의 본격적인 육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정된 특화작목을 집중 지원, 육성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유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